

- 1-1 제65회 CMF 전국학생수련회 스케치
- 2-1 지역누가회소식
- 2-2 우리캠퍼스를 소개합니다.
- 3-1 제65회 CMF 전국학생수련회 소감문
- 3-2 집중훈련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4-1 선교부소식
- 4-2 사회부소식
- 4-3 간사동정

2012년 2월10일 Vol.42 | 발행인 : 김민철 | 편집: 누가의 집 | 발행처 : 한국누가회 (CMF) | 편집 디자인 : 마재영
주소 : (440-82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64 2층 누가의 집 | 전화 : 02-2655-0930 | 팩스 : 0505-329-0569



웹 : <http://www.kcmf.org> | E-mail : cmf@chol.com

제65회 CMF 전국학생수련회 스케치

김현태 / 대전한 본2
제65회 CMF 전국학생수련회 학생디렉터



1월 16일(월)-20일(금) 4박 5일 동안 배재대학교에서 진행된 CMF 학생수련회. 유난히도 추웠던 날씨 속에서도 CMF라는 공동체 이름 하나로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설날을 바로 앞두고 진행된 수련회로 일정이 하루 짧아져서인지 많은 학생들이 첫날부터 일찌감치 수련회로 걸음 하였다.



첫째 날, 여는 이야기는 CMF 속에서 만남을 시작해 부부의 연을 맺으신 김준태, 송경원 부부 누가선생님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학생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CMF 안에서 가졌던 여러 에피소드들. 앞으로 우리 CMF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들을 담은 진솔한 나눔 속에서 훈훈하게 수련회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이후로는 GBS와 EBS로 나뉘어 각자의 프로그램 속에서 말씀과 나눔을 이어갔다. EBS에서는 약 120여명의 학생들이 성경강해와 자아상, 구원론의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GBS에서는 총 6번의 마가복음 성경강해 속에서 'The Gospel'이라는 주제 아래 신현우 교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성경강해 후에는 각자 조배정을 받고 설렘과 어색함 속에서 그렇게 첫째 날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맞이한 **둘째 날**, GBS에서는 성경강해와 10개의 다양한 선택강의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보냈고, EBS에서는 조별발표회를 통해 각 조간의 교제와 나눔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별히 이날 EBS 조별 발표회 때 인상 깊었던 공연이었던 스마트폰을 활용한 Black-light 공연은 소망의 밤 때에도 소개되어 많은 지체들에게 탄성을 자아냈다. 이 둘째 날부터는 다들 어느 정도 수련회에 적응도 되고, 조별모임과 GBS모임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말씀에 대한 묵상과 서로에 대한 깊이 있는 교제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셋째 날에는 GBS에서 백은성 간사님께서 자신의 삶과 함께 유쾌하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CMF Spirit'에 대한 전체강의를 해주셨고, EBS는 조장과 헬퍼가 전하는 사랑과 배려 속에 함께 말씀을 듣고, 신앙과 궁극한 것들에 대해 나누는 시간들을 보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 EBS 지체들의 Calling 시간이 있었고, 이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어느덧 수련회 **넷째 날**. 하루 짧아진 수련회 일정에 대한 체감은 생각보다 컸다. GBS는 마지막 성경강해, EBS는 마지막 구원론 강의를 듣고, 짧지만 간략하게 다윗과 요나단 시간도 가졌다. 이후 다 함께 GBS 주강당에 모여서 하트(♡) 모양의 단체사진도 찍고, EBS는 2차 calling과 애찬식, 전국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들이 주는 사랑을 나누고 만끽하는 시간을 누렸다. 그러다 보니 금세 소망의 밤 시간이 다가왔다. 언제나 그러했듯 소망의 밤 시간은 EBS 지체들의 입장을 열렬히 환호하고, 다함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렇게 따뜻하게 진행되어갔다. EBS 지체들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에 맞춰 워십댄스를 선보였고, GBS 지체들은 EBS 지체들에게 조장 헬퍼가 보내는 영상과 함께 '너와 함께'라는 노래에 맞춰 축복하며 화답했다. 캠퍼스별로 함께 지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 본4, 간4 이제 누가선생님이 되어 의료사회로 나갈 예비누가들을 파송하는 파송예배의 시간을 가졌다. 선배들의 신나는 '구원열차' 워십과 제완주간사님의 애정 어린 말씀, 그리고 선배들을 향한 진심을 담은 축복.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을 의료사회 속으로 파송했다. 다음으로 후배들과 CMF를 생각하는 마음에 걸음 옮기신 졸업 누가들에게 대한 소개, 그리고 수련회를 섬긴 이들, 간사님들에 대한 축복, 진행팀 워십과 인수인계가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로 다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 '낮의 햇빛 속에'를 부르며 수련회 기간을 통해 받은 은혜, 결심한 것들을 다시금 되새겼고, 이후 자유롭게 함께 교제하고 수련회를 돌아보며 캠퍼스를 향한, 의료사회를 향한 소망을 품으며 그렇게 소망의 밤. 수련회의 마지막 날 밤이 깊어갔다.

우리는 이번 65회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한 걸음 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조금은 더 CMF 공동체를 향한 애정과 서로를 향한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캠퍼스와 가정,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바로 설 우리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를 섬긴 GBS, EBS 진행팀과 찬양팀, 기도팀. 그리고 간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이번 우리 65회 CMF 학생수련회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역누가회 소식

서울경기누가회

http://cafe.godpeople.com/seoulcmf
E-mail: cmf-sg@hanmail.net

2011년 12월 연말에 온라인 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장관개정, 임원선출 및 예결산안이 인준되었습니다. 선출된 임원 명단을 첨부하겠습니다. 선출된 임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월 정기모임이 방학이었는데 모임 기다리셨지요? 곧 만나 뵙겠습니다. 2월 정기모임에서는 조경아사님들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나눔 예정입니다.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확인해주세요!

서울경기누가회 정회원들께 보내드리는 매일성경!!!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cmf-sg@hanmail.net 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소모임 안내

- * 지역 모임
- + 강서 모임 :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매월 세 번째 토요일 / 박태근 누가(narahope77@hanmail.net)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 + 수원 모임 : 모임 날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하겠습니다. 모임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김중규 누가(levite02@gmail.com)
- + 답서 모임 : 1월 19일(목) 늦은 7시30분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저녁 7:30분 관악구/동작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인근누가 오광주(조선치 82줄) 누가 연락처 okajudr@hanmail.net / 010-9012-4338
- + 인천 모임 : 1월 2일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 매일성경 QT 모임
- +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 장소-도곡동 글로벌케어내과
- 2012년 서울경기누가회를 섬길 임원단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직책	이름	종업학교&연도	비고
회장	김유진	원주의 93졸	송도병원
부회장	장규진	고려의 02졸	박희봉의과프리미어검진센터
	곽영준	연세의 05졸	
총무	김지훈	경희의 96졸	운유환의원
	박중철	조선의 01졸	신천연합병원
부총무	이두형	경북치 06졸	군익관
서기	송희	경북치 08졸	
회계	박희정	대구한간 09졸	고대안양병원

강원누가회 소식

http://wonjujucmf.org

- 1. 강원누가회 새 임원진이 선출되었습니다.
- + 회장: 김윤진 누가

(연세원주의 02졸, 건국대 추주병원 응급의학과)
 + 총무: 최한주 누가 (연세원주의 99졸,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기독교병원 응급의학과)
 + 회계: 노영일 누가 (연세원주의 10졸, 봉평보건지소 공보의)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김상하 누가께서 2년간의 미국연수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섬기기도 하였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준비와 기도 끝에 선출된 임원들입니다. 격려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 2. 강원누가회는 열린 모임입니다. 원주에서의 병원내 모임과 함께 시기에 따라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을 열고 있고 모임을 통하여 파송된 선교사님을 포함 여러 교역자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운영 방안에 대한 기탄없는 의견 주시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특성상 모임을 통하여 훈련된 많은 누가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막상 믿음의 고향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충북누가회

http://www.kcmf.org



정기모임으로 1월 9일 청주상당교회에서 새해 첫모임으로 김희영 간사님의 말씀으로 시작, 은혜를 받고 조를 나누어 각자 기도제목을 나누고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네팔로 단기선교를 떠나는 충북의대, 단국의, 치대, 순천향의대, 경상의전 학생 등 충북의대 소아청소년과 우성일교수가 팀장이 되어 떠나는 단기팀이 함께 예배드리며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단기선교팀 일정

네팔 라당지역 / 1월 18일 ~ 27일 / 우성일, 이상일 누가
 동티모르 / 1월 24일 ~ 2월 3일 / 이승훈 누가
 중국 심천 / 2월 9일 ~ 13일 / 홍운연, 강유일, 이원욱 누가
 이사회 모임: 1월 30일 저녁 / 충북누가회 이사, 회장, 총무
 신입회원: 오영훈 누가
 (충북의 09졸, 현 청주시 상당구 보건소 공중보건의)

- 2월 모임: 2월 6일 - 임원단 모임
- 2월 13일 - 정기모임(청주 상당교회)

대전충남누가회

http://cafe.godpeople.com/dccmf

- 1. 지난 1월 9일(월)에 둔산 에슬리에 신년모임이 있었습니다. 대전외국인무료진료소 총회와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식사 이후에 누가회 재정/결산 보고가 있었으며, 이해진 누가(대전한)께서 차기 서기직과 선교부장직을 겸하여 섬겨주시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2. 다음 누가회 모임은 2월 6일(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은 신입누가와 함께 합니다.

광주전남누가회

http://cafe.godpeople.com/kjcmf



광주전남누가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5시 누가의 집에서 정기적인 예배 및 선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 첫 번째 모임은 설 연휴 관계로 1월 28일(토)에 있었습니다. 많은 누가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새해인사를 나누고, <깨달음과 채워짐의 2012년>이라는 제목으로 하태식 간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찰하며 매순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2012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근황을 나누며 선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2년 전반기 누가 모임은 골로새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많은 누가 선생님들과 가족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풍성히 채워지는 201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구경북누가회

http://club.cyworld.com/dkcmf

- 1. 1월 7일(토) 김경중 누가(쪽방사역공보의)와 김종일 누가의 차녀 김유민 양의 결혼식이 권승수 목사님의 주례로 대구동신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누가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고, 김경중 누가는 직접 신부에게 축가를 불러 주었습니다. 은혜로우면서도 축제 같은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대구경북누가회는 회원과 회원이 장인과 사위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선생님들! 사위 머느리 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서 찾으세요! ^^
- 2. 1월 11일(수) 정기모임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 파송예배로 드렸습니다. 전지전 간사님의 말씀 후에 참가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참여 동기와 기도제목을 들었으며, 팀원들이 준비한 헌지어 찬양과 함께한 지체들의 중보기도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25일(수)~2월 4일(토)까지 전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3. 1월 18일(수) 김종일 누가의 초대로 대구경북누가회 임원이사 격려회를 가졌습니다. 1박 2일에 강호동과 양준혁이 먹었던 대구의 대표음식 동인동점갈비를 먹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대구경북누가회의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4. 1월 25일(수) 정기모임은 2012년 대구경북누가회 공화사역모델선정을 위한 의결수렴의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1월 10일(화)~11일(수) 아름다운생명사랑 추최 지역사회 NGO실습을 다녀온 임주현 누가가 독거노인사역에 대한 발제를 하였고, 이상협 누가가 신안군 하의도에서의 방문진료사역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으며, 현재 대구쪽방공보의에 있는 김경중 누가가 쪽방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후 지체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들은 사역의 본질이 사랑임을 강조하였으며, 복음전파와 봉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부산경남누가회

http://doctor.ye.ro

- 1. 1월 모임
- 1월 월례회
- + 일시: 2012년 1월 15일(일) 저녁 6:00
- + 장소: 최봉인 누가선생님 가정
- 1월 월례회모임은 박무열 선교사님(인제의 93졸, 방글라데시 선교사)을 모시고 가정모임으로 가졌습니다. 최봉인 선생님의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떡국과 음식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박무열선 교사님의 선교보고를 듣고 다 같이 축하하였습니다. 참고로 박무열 선교사님은 이번 '제1회 이태석봉사상'을 부산시청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선하심이 선교사님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길 기도하였습니다.
- 1월 기도회
- 1월 기도회는 세계로병원 병리과 회의실에서 밤 9:30분에 누가들이 모여서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경남누가회로 통하여 주께서 하실 일에 우리가 민감해지도록 올해 계획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섬김에 열매가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 달에는 특별행사로 김민철 누가선생님(한국누가회 이사장)을 모시고 거제교회 드림센터(부산)에서 강연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누가들이 참석하여 누가회 공동체의 비전을 나누는 도전의 시간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경누가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기도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 2. 2월 모임
- 2월 월례회
- + 일시: 2012년 2월 19일(일) 저녁 6:00
- + 장소: 유중훈 선생님 가정
- + 말씀: 손광수 목사(들사람교회, 고신대CMF 협력간사)

우리캠퍼스를 소개합니다!

가톨릭대학교 CMF



전국 CMF 지체들께 저희 가톨릭 CMF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CMF입니다. 저희 가톨릭 CMF는 강준헌 간사님의 지도 아래 약 40명의 재학생과 55분의 졸업 선배님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가톨릭 CMF는 다른 캠퍼스에 비해 그 역사가 길지 않아, 아직 많이 어리고 약한 공동체이지만 강준헌 간사님의 말씀과 졸업 선배님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가능성 많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저희 CMF에 간호대 8명, 의전원 4명의 신입생이 저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신입생을 보내 주셔서 감사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함께 예배드릴 뿐 아니라, 회년에 봉사활동도 가고, MT도 가고, 캠퍼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 커리큘럼 문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일정이라 공동체를 누리는 데 조금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던 본과 4학년, 간호대 4학년 지체들이 졸업할 하게 되어 많이 아쉽고 그

빈자리가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하지만, 작고 미약하게 시작했던 저희 캠퍼스를 천천히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보면, 올해는 또 저희 캠퍼스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채워주시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십여 년 전, 단 한 명의 CMFer로 시작했던 저희 가톨릭 CMF가 더디지만, 꾸준한 발걸음으로 성장하고 해가 갈수록 더욱 더 풍성한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작지만,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가톨릭 CMF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1. 함께 드리는 예배와 조모임을 통해 가톨릭 CMF가 더욱 더 풍성한 공동체를 누릴 수 있도록
- 2. 강준헌 간사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공동체, 말씀대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 3. 올해도 공동체를 사모하는 신입생들을 보내 주시고 저희가 함께 좋은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제65회 CMF 전국학생수련회 소감문

이주향 / 조선의 본4
제65회 CMF 전국학생수련회 EBS 17조 조장



백홍간사님의 EBS 말씀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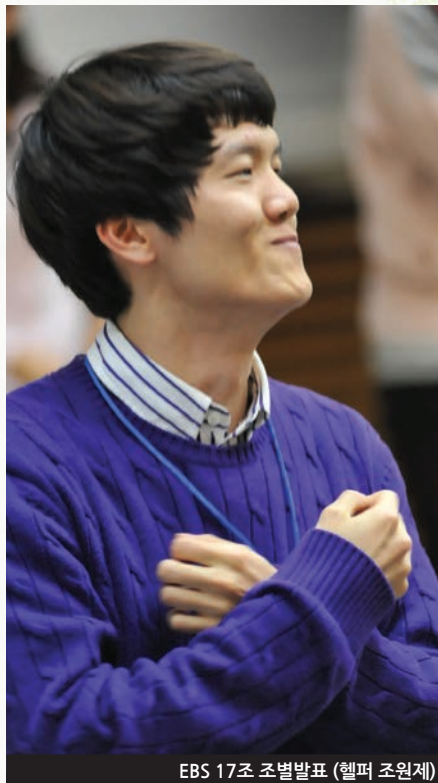
EBS 17조 조장 이주향



EBS 인형극 공연



EBS 17조 조별발표 (조원 송낙구)



EBS 17조 조별발표 (헬퍼 조원제)

국시를 2달 남짓 남겨둔 시점, 문득 CMF를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아마 학생으로서 마지막 수련회라는 애뜻한 마음으로 조장을 지원했는지도 모르겠다.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때문에 오히려 국시보다도 더욱 수련회 날짜가 나를 설레게 만들었다. 하지만 EBS는 생각보다.....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을 많이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곳이었다. 만약 미리 이 수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았다면 조장을 섬기는 일을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지도 모르겠다.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라고는 기도와 말씀 묵상 밖에 없었다. 사실 그 2가지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내가 해야 하는 최선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 EBS는 시작되었고, 그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신 주님은 일하셨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했다.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며 또한 사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고를 가리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나를 EBS 한 가운데로 세우신 분은 주님이었고,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순간순간 주님이 내게 주셨던 마음들을 조원들과 나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다. 어떻게 보면 조별모임, 그룹성경모임, 그 외 여러 교제들 가운데서 나의 지체 없음을 덮으시고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부단히도 일하셨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주님은 홀로 영광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특별히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고 싶다" 말씀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분의 양을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뢰와 사랑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사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욱 잘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믿음 없는 나를 일깨워 가시며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노력을 더하셨고, EBS라는 귀한 도전을 통해 나를 더욱 성장 시키셨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진 조원들을 보면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생겨났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더욱 크고 놀랍다.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수련회를 마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게 정말로 신실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수련회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영혼들을 위해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나를 더욱 감격하게 했다.

지난 6년간을 돌아보며, 사람들이 나에게 'CMF 안에서 무엇을 알아갔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A-men.

전국학생수련회와 더불어 나를 CMFer 되게 하는 집중훈련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자 : 2012년 2월 6일(월) ~ 9일(목)
+ 장소 :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42-3)
+ 회비 : 6만원
+ 개설학교 : 캠퍼스리더학교, 세계관학교, 성경연구학교, 의료선교학교, 사회선교학교, 졸업생학교
6일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미리 오셔서 등록해 주세요!
***첫 프로그램 : "여는 이야기"**
 (강의: 강영수 누가/이화의 87년 졸업)

<학교별 소개>

1. 캠퍼스리더학교 (교장: 방선일 간사)

캠퍼스리더학교는 올해 리더학년으로 섬기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되는 자리입니다. 이 학교의 목표는 리더의 개인 영성훈련, CMF 역사와 정신 탐구,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전략 등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2012년 리더학년이라면 모두 필참하셔야 해요~!!
 담당간사: 방선일, 임성재, 장현준, 조영래, 백은성, 유승용

2. 세계관학교 (교장: 배재근 간사)

세계관학교는 세상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책임기와 토론을 통해서 점검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유익은 :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보다 균형잡힌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의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교재 :**
 <세계관은 이야기다>
 마이클 고헨크레이브스, 트루먼, IVP

*** 담당간사 :**
 배재근, 정경일, 정규태, 최원일 간사

3. 성경연구학교 (교장: 박경엽 간사)

성경연구학교의 근본적인 전제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딤후 3:16-17)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붙잡는 사람은, 말씀이 자신을 붙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접근방식은 실제적입니다. 성경적 예들과 실천적인 숙제들을 풍부하게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성경해석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에 깊이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성경해석의 과정을 따라 가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의 강의 후 간사님과 조별로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강의 1 :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김희영 간사)
 *강의 2 : 문맥에 따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택환 간사)
 *강의 3 : 성경의 의미를 어떻게 이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 (박경엽 간사)

4. 의료선교학교 (교장: 조계영 간사)

세상은 민족과 지역을 불문하고 개인의 탐욕과 죄성으로

인하여 더욱 복잡해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한 선교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전인적 선교, 총체적 선교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의료선교학교에서는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사역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선교전략을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CHE는 1978년 스벤 롤랜드에 의해 개발된 '총체적 지역 사회개발 전략'으로서, 미국의 Life wind International을 중심으로 현재 전 세계 105개국, 수천 개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선교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인적 선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변화된 현지인들과 지역사회를 관찰하게 됩니다. 어떻게 총체적으로 변화되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훈련받게 됩니다. 의료선교의 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선교 역량을 넓히게 됩니다



*** 필독서 :**
 전인적 지역사회 개발선교
 스벤 롤랜드, 에벤에셀

*** 주 강사 :** 유종원 선교사

*** 담당간사 :** 조계영, 전지천 간사

5. 사회선교학교 (교장: 김영진 간사)

사회선교학교는 작은 누가들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의료사회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역하며 살아가는 의료인으로 성장하는데 작은 밑거름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회선교학교는 세계관 중급 과정을 겸하여 개설하였으

며, 김영진 간사님의 인도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재는 존 스토트의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 교재 :**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존 스토트, IVP

*** 담당간사 :** 김영진

6. 졸업생학교 (교장: 최관호 간사)

저는 코스모스를 참 좋아합니다. 어린시절 전학을 가서 잠시 다녔던 전라남도 순천에 있던 초등학교에 가는 길에는 당시 저보다 키가 큰 코스모스가 참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다시 찾아간 초등학교 가는 길에는 여전히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자리에서 코스모스를 통해 맑고 시원 가을하늘이 아니라 코스모스를 지탱해주고 있는 흙을 보았습니다. 작아진 코스모스를 보며 왠지모를 서러움이 저를 스쳐갔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파에 흔들리고 있는 나의 실존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중훈련학교 중에 졸업생학교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서 첫 발을 디디는 우리네 신앙여행 중의 한 매듭을 맺는 그 흔들림을 같이 맺고자 합니다.

선교부 소식

《 1월 선교부 소식 》

1. 학생선교 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선교부 정기모임 1

일시: 1월 7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누가의 집
 내용: 2012년의 첫 번째 정기모임으로 학생들과 선교 초심자들을 위한 선교 특강으로 요르단에서 사역하셨던 김문규 선교사님을 모시고, 모슬렘 선교의 경험과 부르심, 그리고 제자도의 중요성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특히 제자도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여 양육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양육하는 것을 기대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 하셨습니다. 선교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2. 학생선교네트워크 MT

일시: 1월 15일(일) 오후 5시 30분
 장소: 누가의 집
 내용: 선교부 산하 학생소그룹인 학생선교네트워크의 지체들은 오랜 방학 기간 중에 누가의 집에 함께 모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10여명의 학생들과 김창환 대표를 비롯한 선교부 임원들, 그리고 조계영 간사가 참석하여 새벽까지 함께 교제하고 놀았습니다. 조계영 간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예리한 질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받는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날은 선교부 임원들이 대폭적인 간식지원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교제의 장이 되었고, 서먹했던 학생들 상호간이나 어려웠던 선교부 임원 누가들 친밀함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MT의 하이라이트는 '가치관 경매'였습니다. 각자 1천만의 돈을 가지고 경매에 나온 가치관들을 사려고 심한 눈치작전을 펴며 열띤 경매를 벌였고, 이를 통해서 그 지체의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선교부 정기모임 2

일시: 1월 15일(일) 오후 5시 30분
 장소: 누가의 집
 내용: 1부는 찬양과 기도를 드렸고, 이어서 조계영 간사의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계영 간사는 사도행전 1:3-11을 본문으로 제자도에 대하여 설교하셨습니다. 특히 "제자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다. 우리의 삶, 가치관, 계획,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자가 되시기를 간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이 날은 특히 아프리카 파송을 위해 말라위로 정탐여행 가시는 강동원, 전진경 선생님 부부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제목들은,

1. 정탐여행, 파송에 대한 가족들과의 나눔이 부딪힘없이 받아들여지고, 학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순탄하게 만들어져갈수 있도록
 2.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3. 볼모지에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를 가질수 있도록
 4. 선교부에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주시길.
- 이러한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2월 선교부 안내 》

1. 선교부 정기모임 1

일시: 2월 4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누가의 집
 내용: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정기모임은 원래 학생선교네트워크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인데, 이번에는 의료선교학교와 시간상 너무 가까운 관계로 매월 셋째주일에 하는 선교부임원들 중심의 모임과 시간을 바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은 선교부임원들과 누가들의 중심되어 찬양, 예배, 중보기도와 회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2. 의료선교학교(CHE 기본훈련)

일시: 2월 6일(월) 14:00 - 9일(목) 12:00
 장소: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수원)
 내용: 매년 겨울방학 중 학사학원사역부에 주최하는 집중훈련학교에서 선교부는 의료선교학교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류종원 선교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CHE 사역에 대한 소개와 기본훈련을 받는 시간으로 준비되며, 이미 여러 학생들과 몇몇 누가들이 관심을 표하고 참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선교부 정기모임 2

일시: 2월 19일(일) 오후 5시 30분
 장소: 누가의 집
 내용: 학생선교네트워크의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찬양과 예배,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잠시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오신 강동원 누가와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공지사항

1. 선교사 후원

2010년 9월부터 매월 적게나마 누가회 선교사 43가정에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십시일반의 심정으로 후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선교기금 상환요청"

선교부에서는 학생들의 선교지 방문을 돕기 위해서 학생선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명의 학생들에게 수 십 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졸업 후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재 상환실적이 미비하여 기금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생시절에 선교부에서 기금을 지원받았던 누가들께서는 후배들을 위한 학생선교기금을 적립하는데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선교기금을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 선교부 문의 》

선교부 메일: kcmf@hanmail.net
 (큰 용량은 꼭 hanmail로 보내주세요.)
 카페: http://cafe.daum.net/kcmf
 담당: 조계영간사(010-8247-5635) / kerygmacho@gmail.com
 주윤경 간사(010-7656-0931) / cmfju@naver.com

《 선교부 후원안내 》

-선교부 계좌:
 하나은행 586-810012-18705 / 한국누가회 (선교사 후원, 경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학생기금계좌:
 하나은행 224-910039-91604 / 한국누가회 (학생들의 단기선교여행, 선교지 실습시 임차지원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 후원문의: 02-2655-0930 / www.kcmf.org에서 CMS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부 소식

1. 사회부 활동

- 1) 캄보디아 아름다운여행 (빈민촌 보건의료사업)
 + 1월 28일(토) ~ 2월 4일(토), 캄보디아 앙롱강안
- 2) 아름다운생명사랑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NGO 실습
 + 1월 10일(화) ~ 11일(수), 아름다운생명사랑 사무실과 지역사회 협력기관
- 3) 장애인건강연구회
 + 1월 세미나: 『불편해도 괜찮아』 1~3강, 1월 7일(토) 오후 5시~, 대학로 호모북커스
 + 2월 세미나: 『불편해도 괜찮아』 4~6강, 2월 4일(토) 오후 4시~, 대학로 호모북커스
 + 2012년 계획: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책나눔과 이야기 나눔, 도움주시기를 자청하신 누가 선배님들과의 만남, 장애당사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맺기 + @ (맛난 먹거리와 수다 한마당 ㅎㅎ)
- 4) 생명윤리연구회
 + 정기모임: 1월 14일(토) 오전 11시~, 명동 청어람 1실
 + 교재: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 제9장 살인에 대한 회복적 형벌
- 5) 밝누모
 + 방문진료: 1월 14일(토) 오후 1시 반~, 아름다운생명사랑
 + 소풍: 1월 27일(금) 오후 2시 목동 아이싱크장
 + 2012 보건의로 진보포럼 참석: 1월 27일(금)~29일(일), 서울의대 합춘회관
 + 문상준 선배(서울의 03졸):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정책 사무관 시작
- 6) 이주노동자 건강연구회
 + 정기모임: 1월 28일(토) 오후 5시~, 이충형 협력간사 가정

2. 아름다운 생명사랑 지역사회 NGO 실습을 마치고...

임주현 /계명의 00졸
 대구경북누가회 국내선교부장, 정신과 전문의

1) NGO 실습에 오게 된 계기

2011년 대구경북 누가회 회장으로 섬기면서 회원들과 같이 "우리가 가야할 길은 어디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9-10)"

밭모퉁이가 얼마만큼의 크기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유대인들은 1/20-1/8정도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현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동전 한 닢씩 모아 가난한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즉, 레위기 말씀을 밭모퉁이를 대신해 동전을 모으는 것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전을 모으는 통에 동전을 넣는 자선 행위를 '즈다카'라고 하며, '즈다카'는 '법상, 학교 책상, 유대인의 모임에서 반드시 실천되고 있습니다.

'즈다카'의 의미는 우리말로 구제나 자선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곤경에 처한 사람을 현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즈다카'의 어원은 '공의롭고 공평하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물질로 돕는 것이 공의로운 행위가 자 의무의 실천이며, 레위기 말씀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당연히 주어야 할 몫으로 이해합니다.

의료인의 모임인 CMF에서 "밭모퉁이"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이르렀고, 그 대답은 가난한 자를 위한 의료였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이 "구제"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의, 정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 6:33)"

대구경북 누가회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고민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회장의 임기를 마치고, 제가 대구경북 누가회 안의 국내선교부를 맡게 되면서, 이를 실천할 방법을 모색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홍두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사랑 NGO 실습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경누가회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경북의전 학생 CMF 회장)가 같이 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 감사한 일 - 가야할 길을 발견하다

아름다운 생명사랑의 태동부터해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대구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들을 시작하고 체계를 잡을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대략의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날, 공부방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해주고, 그 아이들을 직접 보면서 "공부방"의 현실과 필요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름다운 생명사랑에 의뢰된 독거노인 분들을 직접 만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기억 남습니다. 일상의 서울 거리와 다른었던 골목길 속에 숨어있는 반지하 방들과, 쪽방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실제로 접하게 되면서, 많이 놀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과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과연 저를 어떻게 쓰실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언어가 달라서 내과나 외과처럼 유용하게 쓰일 수 없었고, CMF 단기 선교를 가도 내과 샘플이 정해 놓은 약속 처방을 따라 처방하며 일반의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실습을 하고, 독거노인들을 만나면서,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고 있는 분들의 정신과적 필요를 볼 수 있었고, 그 분들을 면담하는 과정이 제가 진료실에서 면담하는 과정과 유사했으며, 또한 실제로 환청과 망상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꼭 병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역기능 가정과 가족관계 소통의 문제 등에 대해 정신과 의사로 개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ㅎㅎ); 그러자, 그분들을 면담하는 내내 계속 '하나님, 대구에도 빨리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솟구쳤습니다.

3) 노년 - 자녀들을 축복하는 세대로의 회복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익히 들어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회공동체는 자녀양육과 가정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년이 되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와 자녀를 위한 "중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대에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실제로 노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임합니다. 그 노년은 자녀들이 치열하게 사회에서 지내다가 심을 얻을 수 있는 로덴나무와 같은 품이 되어야 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독거노인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사랑의 일들을 통해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어가고 의학적인 필요를 도와드리면서, 그 분들의 당장의 긴급한 필요들이 해결된다면, 자녀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바로 곁에서 보고 싶은, 또한 제가 정신과이기에 좀 더 욕심을 내어보고 싶습니다.

4) 감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진 목사님과 조아라, 진혜로 간사님께 귀찮을 정도로 많은 질문들을 했지만,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시고, 경험들을 나누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두호 선생님께서 미국에 계셔서 못 만나뵈게 아쉽지만, 김창오 선생님, 서울 우리내과 임열리 선생님, 박신실 선생님.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를 학생으로 봐주시고 (^^), 인사 나누고 직접 만나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 누가회가 가난한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보지 않은 길이라 어디로 가야할 지 막막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딛어 보려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추수할 일꾼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PS) 회비가 1만원 밖에 안되는데, 먹여주시고 채워주는 곳은 여기 실습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자주 와야겠어요 ㅋㅋ

간사동정

1. 백홍 간사 안식년

올해로 9년차에 접어드시는 백홍 간사(서울경기지역)가 안식년을 가집니다. 충분한 심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심심하지 않도록 가끔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완주 간사 안식월

제완주 학사학원사역부 대표간사가 2월 한 달간 안식월로 보냅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사무실 행정팀 간사 수련회

2월 20일(월)부터 21일(화)까지 행정, 재정으로 수고하는 사무실 행정팀 간사들이 1박 2일로 부산에서 수련회를 가집니다. 팀워크를 정비하고, 한 해 동안 누가회 행정과 사역을 섬기기 위한 계획을 잘 세우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